



해·원

<解冤>

상처 위로하고 치유하고
세월호를 다시 생각하다

말로

김원중

30일 빛고을시민문화관서 11월 '김원중의 달거리 공연'

말로 밴드·이정렬·손병휘, 시인 나희덕 교수 등 무대

매월 한 차례씩 열리는 '김원중의 달거리'는 '빵 만드는 공연'이다. 관객들이 공연 후 보낸 작은 정성은 차곡 차곡 모아 북한의 빵 만드는 공장으로 보내진다.

11월(30일 오후 7시30분 빛고을시민문화관) 열리는 80번째 달거리 공연은 조금 특별한 무대다. 세월호를 기억하고, 서로를 위로하고 치유하며, 다시 세월호의 상처를 똑바로 쳐다보는 자리다.

지난해 11월 제정된 '세월호 특별법'은 아직까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세월호 유족들과 시인, 뮤지션, 배우들은 전국을 순회하며 '세월호'에 대한 이야기를 전할 예정이다. 그 첫무대로 광주를 찾았고, 달거리 공연팀과 함께 공연을 준비했다. '달거리 공연'은 지난해 4월 '세월호 참사 희생자 자기 성금 마련 콘서트'를 진행한 적이 있다.

이번 달 공연의 주제는 '해원(解冤)'. '해원'은 '가슴 속에 맺혔던 원통함을 풀다'는 뜻이다.

이번 무대에서는 재즈 아티스트 말로가 이끄는 '말로 밴드'가 함께한다. 미국 버클리음대에서 공부한 그녀는 세련된 재즈 어법과 가사, 독창적인 보컬로 한국 재즈계를 대표하는 가수다. 또 전통 가요를 재즈로 재해석한 앨범

범 '동백 아가씨'와 배호의 노래를 새롭게 해석한 '말로 싱즈 배호(Malo sings Baeho)' 등을 통해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또 뮤지컬 무대를 비롯해 가수로도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이정렬, '조국과 청춘' 출신으로 삶의 현장에서 생생한 삶의 노래를 부르는 손병휘, 인권과 통일을 노래해온 남녀 혼성 민중가요 그룹 '우리나라'가 출연한다.

시인으로는 69명의 국내 대표 시인이 참여한 세월호 추모 시집 '우리 모두가 세월호였다'에도 참여한 나희덕 조선대 교수가 함께한다.

그밖에 달거리 공연의 주인공 김원중씨도 무대에 선다. 공연의 무대 미술을 담당하는 초대 작가는 화가 허달용(광주민족미술협회회장)씨가 함께한다. 공연은 무료로 진행되며 행사가 끝난 후 로비에 마련된 모금함에 작은 정성을 더하면 된다.

전국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지구촌 김원중 달거리 생중계도 계속된다. <http://ustre.am/1pUUR>. 문의 010-3670-5082.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나희덕 시인

세월호 1년 다큐 '나쁜 나라'

내달 3일 광주극장서 개봉

세월호 참사 이후 1년의 과정을 내밀하게 기록한 다큐멘터리 '나쁜 나라'가 오는 12월 3일 광주극장에서 개봉한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직후부터 '세월호 특별법' 제정에 이르기까지,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유가족들의 활동을 기록했던 '416 세월호참사 시민기록위원회'의 제작으로 완성됐다.

평생 '유가족'으로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 마주친 국가의 민낯, 빼어난 성찰의 나날, 생존 학생들과 자식을 먼저 떠나 보낸 유가족들의 시간을 고스란히 담아낸 작품이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2015.12.03

알립니다

한국문단의 새 이름, 당신입니다

2016 광주일보 신춘문예

12월 15일까지 접수합니다

광주일보사가 한국문단의 새 주역이 될 참신하고 역량 있는 신인 작가 발굴을 위해 '광주일보 신춘문예' 작

품을 공모합니다.

광주일보 신춘문예는 광주일보 창간이래 1953년부터 전통과 권위의 등용문이 되었으며 배출된 작가들은 한국문단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 왔습니다. 치열한 문학경쟁이 살아있는 작가 지망생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 공모 부문 및 상금

- 단편소설 : 200자 원고지 80매 안팎(당선작 1편, 고료 300만 원)
- 시 : 3~5편(당선작 1편, 고료 100만 원)
- 동화 : 200자 원고지 30매 안팎(당선작 1편, 고료 100만 원)

■ 접수 마감 : 2015년 12월 15일(15일자 소인 유효)

- 보내실 곳 : 우편번호 501-711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무등빌딩
- 광주일보사 편집국 문화부 (문의 062-220-0624)

■ 기타

- 팩스나 이메일 원고는 접수받지 않습니다.
- 원고 접수 시 응모분야·성명·전화번호·주소·e메일주소를 함께 기입해주시요. (투고작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 응모 작품은 발표된 적이 없는 창작품이어야 하며, 다른 곳에 중복 입선된 원고나 기성 작품의 표절일 경우 당선시 취소됩니다.
- 당선작은 2016년 1월1일자 광주일보 지면에 발표합니다.

光州日報

동북아시아 민속문화의 미래지향적 가치 모색

남도민속학회 28일 전남대서 학술대회

민속문화를 매개로 인문학 활성화와 세계 문화와의 연계 가능성을 모색해보는 자리가 마련된다.

아시아문화전당 개관을 계기로 아시아적 가치와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동북아시아의 민속문화가 갖는 미래지향적 가치를 주제로 한 학술대회가 열려 주목을 받고 있다.

남도민속학회(회장 서해숙 전남대 교수)는 28일 오후 1시30분 전남대 G&R허브 1층 세미나실에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동북아시아 민속문화의 사회문화적 역할'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학술대회는 한국과 일본, 중국, 대만의 전공학자들이 참여한다. 남도민속학회는 지난 1985년 설립된 이래 그동안 동북아를 기반으로 한 각국의 다양한 민속문화를 조명해왔다.

기조강연으로 전 문화관광부장관인 최광식 교수(고려대)가 '한국문화의 중층성과 민속학'이라는 주제를 발표한다. 가영삼(윤lip과기대학), 장신길(대만문화관), 이랑희(일본동아대학), 김용의(전남대), 서해숙(전남대), 황금희(호남대), 이운선(목포대) 교수 등 국내외 학자들은 영상과 민속, 사회와 민속, 전통과 민속 관련 연구논문을 발표한다. 이어서 나승만(목포대) 교수의 사회로 세계문화를 선도할 동북아 민속문화의 미래지향적 가치와 역할에 대한 토론이 이어진다.

서해숙 남도민속학회장은 "이번 국제학술대회를 통해 동북아의 심층적 전통문화로서 역할을 해온 민속문화가 앞으로 인문학 활성화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 방향을 모색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관심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문의 010-3745-6049.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대인시장 '미담' 아트상품 공모

구민영·이수진·김민수씨 선정

지난 7월 대인예술시장에 문을 연 아트플렉스샵 '미담'이 추진하고 있는 '창작 아트상품 개발 공모사업' 대상자로 구민영(광주), 이수진(광주), 김민수(부산)씨가 선정됐다. 이들은 지난 23일 시상식과 함께 1차 컨설팅을 받았다.

이번 공모는 광주를 비롯해 서울, 경기도, 부산, 청주 등 전국의 전업작가, 시민셀러, 학생, 기획자 등 총 20팀이 참여했다. 하지만 최우수상을 선정하지 못하는 아쉬움을 남겼다. 대신 2명으로 계획했던 우수상 수상자를 3명으로 늘렸다. 이들은 소정의 제작지원금과 전문가 컨설팅, '미담' 입점, 다양한 홍보마케팅 등을 지원받는다.

현재 '미담'은 1·2차 입점작품 공모에서 50여명의 작가를 선정, 700여점의 작품이 입점한 상태다. 문의 062-233-1420. /김용희기자 kimyh@

광주장로찬양단 정기연주회

30일 광주문예회관 대극장

음악을 통해 선교와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광주장로찬양단(단장 진근만 장로)이 오는 30일 오후 7시30분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에서 제22회 정기연주회를 갖는다.

이번 연주회에서는 93명의 단원이 '나를 택하신 주님'을 시작으로 '웃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찬양 거룩하신 주님께', '전능의 주님 인도 하소서' 등 합창 9곡을 선보인다. 또 '나 주님 위해', '충만케 하소서' 등 남성 4중창 2곡, 단원가족들이 부르는 '본향을 향하네', '나 천

국 가리라' 등 2곡이 공연된다. 이외에도 특별무대로 소프라노 구성희 교수가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주여 평화를 주소서' 등을 들려준다.

지휘는 이준 집사, 반주는 김은희 집사와 이주영 씨가 맡는다.

한편 광주지역 7개 교단 63개 교회 장로 93명으로 구성된 광주장로찬양단은 지난 1992년 창단 이후 매년 정기연주회를 열고 있다. 내년 상반기에는 태극 치앙마이를 중심으로 미얀마, 라오스 지역 등에서 선교찬양 여행을 할 계획이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우리가 꿈꾸는 세상
서남권의 중심호텔

목포 상그리아비치관광호텔

모든 분들의 관심과 협조에 힘입어 국내 외·귀빈과 V.V.VIP 행사들을 성공적으로 치러내어 서남해안 관광산업과 목포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상그리아호텔 홍보대사 김연자·김성환

평화광장과 영상강이 한눈에 바라보이는 탁트린 전망과 내집처럼 편안한 분위기를 느껴보세요.

최신시설과 고급인테리어로 새롭게 탄생한 웨딩홀! 여유로운 시간, 하루 한달만 예식!

웨딩 및 피로연 가족모임 각종 연회 세미나 들뜬치 등

상그리아비치관광호텔

SHANGRIA BIACH TOURIST HOTEL

530-390 전라남도 목포시 평화로 79(상동)

예약문의 (061)285-0100